

교토[京都]의 3년

내가 일본 내지에 유학한 것은 교토에서 3년, 후쿠오카에서 3년, 전후 6년 동안이다. 그 중에서도 교토 시대의 3년은 나의 오랜 학창시대를 통하여 가장 유쾌했던 시대이다. 이에 교토 시대에 있었던 일로 지금 추억되는 몇 가지만 적어 보겠다.

그때 나는 도쿄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고향 친구 K와 Y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찾아 이삼 일 쉴 양으로 그곳에 내렸었다. 그랬던 것이 이 두 친구를 떨어질 수가 없고 또 전려우아(典麗優雅)한 이 옛 도읍을 떠나가기 싫어서 D대학 예과를 들어가게 되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열어 주어, 그 자리에서 처음 시인 정지용씨를 만났다. 나는 그의 시를 읽고 키가 유달리 후리후리 크고 코끝이 송곳같이 날카로운 그런 사람으로 상상하고 있었는데, 키는 5척 3촌밖에 되지 않았고 이빨만이 남보다 길었다. 그날 그는 동요 〈띠〉와 〈홍시〉를 읊었다. 그 후 어떤 칠썹과 같이 껌껌한 그믐날 그는 나를 상국사(相國寺) 뒤 끝 묘지로 데리고 가서 〈향수〉를 읊어 주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으로 울음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

이 노래는 나에게 그지없는 향수를 자아내 주었다.

그래서 그는, 향수에 못이겨 하숙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나를 데리고 사조(四條) 어떤 찻집으로 가서 칼피스를 사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또 어떤 초여름 석양에 그는 나와 압천(鴨川)을 거닐면서 <압천>을 읊었다.

압천(鴨川) 십리(十里)ㅅ 벌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

목이 자젓다..... 여울 물소리.....

원 모래알 쥐여짜는 한 사람의 마음

쥐여짜라. 바시어라. 시원치도 않아라.

역구풀 옥어진 보금자리

뜸북이 흠어냄 울음 울고

재비 한 쌍 떴다

비비지 춤을 추어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물바람
오렌지 껍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

압천 십리사 별에
해가 저물어…… 저물어……

이 시가 노래한 그 시간의 그 풍경 속에서 작자 그 사람의 입으로 읊는 것을 들을 때 이 시가 주는 감명은 말할 수 없이 깊었다. 이리하여 <압천>은 <향수>와 함께 정지용씨의 시 중에서 가장 나에게 친숙한 시가 되었다. 이듬해 봄에 그는 금단추 다섯 개를 떼어 버리고, 새파란 세비로양복을 지어 입고 「참벌처럼 닳아들리며」 귀향했다. 공처럼 풍풍 튀어다니는 그의 그림자가 교정에 보이지 않을 때 한동안은 펍 적적했다.

1년을 지나는 동안에 P, K, Y, H, C, 이렇게 늘 같이 모여 노는 친구가 생겼다. P는 나이 30이 훨씬 넘어 중학 3학년이 다니는 노학년이였다. 그러나 모자는 늘 쓰지 않고 들고만 다녔기 때문에 모두들 그를 전문부 학생으로 알았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이 생각날 때는 늘 「내 고향을 이별하고……」 하는 노래를 하였다.

K는 어떤 여자를 짝사랑하느라고 중학을 10년을 다녀도 늘 3학년이었다. 그 동안에 그가 혼자 사랑하고 있는 그 여자는 벌써 전문부를 마치고 D대학 법학부 학생이었다. 그는 때때로 색종이를 오려서 사람의 해골을 만들어 놓고는 감상회에 우리를 초대하여 억지로라도 우리로 하여금 최대급의 감탄사를 연발시켜야만 만족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

는 남의 이삿짐 옮겨주기를 좋아하였다. 「저 강 건너 마을에는 연기도 그치고 기적도 쉬었다……」 하는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였다.

Y는 우리 그룹에서 암전하고 착실한 모범학생이었다. 신문배달을 하고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고학을 했지만 한 번도 불평을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그의 얼굴에서 성난 빛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신경질인 우리들에게 감각이 둔하다고, 동작이 민활치 못하다고 비방을 받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도 그는 싱긋 한 번 웃고 말았다. 그러나 술을 먹으면 젓가락으로 술상을 두드리면서 목청을 짜내는 듯한 소프라노로 「청년들아 나가세 앞으로 나가세……」를 불렀다.

H도 또한 나이 30이 넘어 청운의 뜻을 품고 현해탄을 건너와 신문배달을 하며 고학을 하였는데 불평과 불만이 가슴 속에 뒤끓는 듯하였지만은 결코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일이 없었고, 시시덕거리고 농담을 하는 일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 일대 코러스를 시작하거나 의미 없는 농담·잡담이 점점 불측한 데로 미치거나 하면 「에 간나새끼들!」하며 밖으로 나가 버리고는 하였다. 수염이 많이 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펍 무섭고 똑똑한 인상을 주었지만은 사귀면 사귄수록 인정이 드는 사람이었다. 노래는 우리들 중에 가장 잘 불렀으나 좀처럼 그것을 잘 피력하려고 하지 않았다.

C는 니힐리스트나 염인병자였다. 따라서 그의 행동도 우리의 추측을 분질렀다. 같이 이야기 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아무 말없이 벌떡 일어나 나가 버렸다. 그리고 같이 길을 걷다가도 아무 말 없이 행방불명이 되는 수도 많았다. 그때 그는 매월 집에서 오륙십 원 씩의 송금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담배가 떨어지면 으레히 K를 찾아와서 「담배가 떨어졌당께」 하고는 K의 눈치를 본다. 그러면 K

는 「모른다. 나도 어제부터 굶었다」 이렇게 특 소아 붙이고는 슬며시 어디론지 나가서는 반드시 빛도를 한 갑씩 들고 들어왔다. 그러면 C는 갑자기 생기가 나서 등원의강(藤原意江)의 흥내를 낸다고 괴상한 몸짓을 해 가며 「이소우도도랴 히구레랴 가에루……」 하고 목청을 빼었다.

이렇게 우리들의 그룹은 모두 다 특이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인지 서로 마음이 맞는 데가 있어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못견디었다.

하기야 어쩌다 수가 틀리면 1, 2개월씩 만나지 않는 일도 있었다. 한 방에 있으면서도 며칠씩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나 한 사람이 「너 암만 그래 봐라」 하고 말만 걸면 「그래 보자」 이런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상판 좀 보자. 자식 쌍통 묘하다」 이렇게 두서너 번만 설왕설래하면 「허허」 웃어 버리고 말았다.

너무나 친구들 이야기가 길었다. 그러나 나의 교토 시대의 추억은 무엇 하나 이 친구들의 생각과 얽히지 않는 것이 없다. 아라시야마사구라 구경간 것도 그들과였다. 술을 말로 받아다 놓고 통음하던 것도 그들과였다. 「내 고향을 이별하고 타향에 와서……」를 합창해서 이웃집 처녀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은 것도 그들과였다. 인삼가루를 미숫가루라고 속여 한 편 눈이 찌부러진 주인 영감을 속여 「뭇다이나이 뭇다이나이」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Y와 나의 장난이었다. 2층에서 씨름을 해서 주인 마누라로 하여금 집 넘어진다고 경풍을 하게 한 것도 H와 나였다. 밤중에 2층에서 오줌을 누어서 뜰 앞이 한강이 된 것을 보고 놀라는 주인에게 「차를 버렸더니 그렇게 되었노라」고 변명하느라고 땀을 뻘 것도 Y와 나였다.

밤이 새도록 나와 문학 이야기를 하던 것은 C였다. 나의 첫사랑의 괴로움을 알아 주고 그것을 어루만져 주던 것은 K였다. 3년째 되던 해 봄

에 K가 혼자 그렇게도 사랑하던 XXX와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사랑의 괴로움을 알게 한 XXX가 귀향하였다. 우리는 가모가와 잔디밭에 가 누워서 하루 종일 사랑이니, 삶이니, 계집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 위로하였다.

그 해 1년은 이 친구들과 어울려 늘 재미있으면서도 또 한편 외롭고 서글픈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해 겨울에 K와 C와 나와 셋이 봄이 되거든 도쿄로 가자고 하였다. 그랬던 것이 어떻게 바람이 잘못 불어서 C만 도쿄로 가고, K는 Y, H와 교토에 그대로 주저앉고 나는 후쿠오카로 가게 되었다. 서로 갈릴 때 「언제 또 다시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서글퍼하는 것을 「만날 때가 있겠지」하고 모두들 자신 있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언제나 한자리에 모이게 될는지 가망이 없다. 설혹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를 펴이나 슬프게 할 사실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Y가 작년 이맘때 이 세상을 떠나 버린 것이다. 그는 중학 1학년에 입학하면서부터 고향한 학생이었다.

《조광》, 2권 8호, 1936. 8. 1)